논어 10편 향당 15장 · 원문·풀이

朋友死，無所歸，曰：「於我殯。」朋友之饋，雖車馬，非祭肉，不拜。

독음 · 붕우사 무소귀 왈 어아빈 붕우지궤 수거마 비제육 불배

쉬운 풀이(요약) · 벗이 죽어 장사할 곳이 없으면 자신이 맡겠다고 했다. 벗이 준 선물에는 격식을 차리지 않았지만 제사 고기를 받으면 절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朋 벗 붕 / 友 벗 우 우 / 死 죽을 사 사 / 無 없을 무 무

所 바 소 소 / 歸 돌아올 귀 귀 / 曰 가로 왈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

我 자기 아 아 / 殯 염할 빈 빈 / 之 갈 지 / 饋 먹일 궤 궤

雖 비록 수 수 / 車 수레 거 거 / 馬 말 마 마 / 非 아닐 비 비

祭 제사 제 제 / 肉 고기 육 육 / 不 아닐 불 / 拜 절 배 배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